

韓美 ‘관세 딜’ 완성… 통화스와프 빠졌지만 안정 확보

3500억 달러 분할 투자로 완화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우려에
구윤철 “외환시장 상황따라 조정”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제시한 바 있는 관세율의 수준을 낮춰 주는 대가로 3500억 달러(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전액 현금·선불 지급이 아닌, 완화된 방식으로 대체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 관련 재원 마련은 향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펀드 모집·운용을 통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 체결은 무산됐다. 통화스와프는 해외투자·달러유출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다만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양국은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해당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된 바 있다.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또 농업부문에서는 쌀·소고기 등의 추가개방 없이

검역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3.58% 오른 10만4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실무경험 풍부한 기술형 리더 전진 배치

SK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

이형희 수펙스 사장, 부회장 승진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정재현

SK그룹이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지주회사인 SK㈜ 사장에는 강동수 PM부문장이 SK텔레콤 신임 최고경영자(CEO)에는 정재현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각각 선임됐다.

30일 SK그룹은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관계사 이사회를 통해 확



강동수 SK(주) 담당 사장 정재현 SK텔레콤 사장

정된 사장단 인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사업 체질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차세대 리더 중

심의 조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SK그룹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진 배치했다. 동시에 기술과 연구 역량을 갖춘 리더를 대거 발탁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주회사인 SK㈜는 재무와 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PM부문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SK텔레콤은 정재현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 넘었다

3분기 매출 86조, 분기 역대 최대
HBM 수요 급증… 전체 실적 견인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이 반도체 사업 실적을 끌어올리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6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순이익은 12조

2257억원으로 21% 늘었다. 특히 전자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 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HBM3E와 DDR5, 서버용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해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SAMSUNG

APEC 2025 KOREA

세계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립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지원합니다

APEC 2025 KOREA



‘APEC 연계’ 글로벌 기업 투자신고 12.1억 달러 역대최대

국가IR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7개사, 90억 달러 투자계획
현장서 6.6억 달러 투자신고 하고
추가로 7개사서 5.5억 달러 투자

국가 차원의 대표 IR(Investor Relations)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0일 개막했다.

전날 APEC CEO 서밋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7개사의 90억달러 투자계획과 6억6000만달러 투자신고에 이어 이날 도코 일렉트론 등 7개사가 5억5000만달러 신규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IKS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하기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AI 혁신 파트너, KOREA’와 ‘균형 발전’을 핵심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자·글로벌 투자자·외국 상공회의소·국내의 기업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IKS 투자신고식에서는 5억 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투자신고가 이

어졌다. 참여 기업은 ▲도코일렉트론(일본)·미쓰이화학(일본)(반도체 장비·소재) ▲오션원즈(스페인)(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발레오(프랑스)(자율주행 시스템 연구소) ▲BASF(독일)(여수 스페셜티 화학제품 생산시설) ▲해피톡(대만)(AI 기반 게임 R&D센터) ▲

아그라나(오스트리아)(K-푸드 생산클러스터) 등 7개사다.

앞서 전날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6억6000만 달러는 현장에서 즉시 투자 신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APEC 계기 투자신고 누적액은 12억1000만 달러, 역대 IKS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HP 프린팅코리아, 코닝정밀소재 등 3개사가 외투기업 R&D센터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도체·프린팅·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연구거점을 확장함으로써 기술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와 백준호 퓨리오사AI CEO가 각각 ‘소버린 AI 생태계’와 ‘차세대 AI 컴퓨팅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토의에는 첨단산업 4대 축으로 불리는 ▲자본흐름(UNCTAD) ▲하드웨어(ASM) ▲지속가능 전력(RWE) ▲퓨처 컴퓨팅(Pasqal)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 투자환경, 공급망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6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 투자환경 IRI도 별도로 마련됐다. 포항·울산·경주·수원 등 주요 지역은 배터리·자동차·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IR을 진행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CVC, 엑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한 스타트업 피칭·상담회와 재무적 투자 포럼을 통해 핀테크·헬스테크·ICT 분야 혁신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도 지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美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 1426.5원에 하락 마감

현금투자·조선업 협력 2개 방식
대미투자 3500억 달러 규모 확정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달러당 1440원을 넘보던 환율이 142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양국 간에 견해차가 뚜렷했던 대(對)미 투자의 형태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 같은 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장기 환율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6.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거래 증가보다 5.2원(0.36%)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1439.6원까지 상승해 1440원을 목전에 뒀는데, 일주일 만에 10원 넘게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지난 29일 오후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 이후 3달 만에 세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규모를 확정했다. 대미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분의 연간 투자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지난 8월 초부터 25% 수준으로 부과됐던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도 15% 수준으로 복귀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SK텔레콤, 통신 CIC·AI CIC 조직재편

» 1면 ‘SK그룹 사장단 인사…’서 계속

기존 유영상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 차원의 AI 확산 전략을 총괄한다. SK텔레콤은 통신 CIC(사내회사)와 AI CIC로 조직을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는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SK온은 소재·제조 분야 전문가인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사장은 이석희 사장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SKC는 자회사 SK엔펄스를 이끌던 김중우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사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장동현 부회장과

호흡을 맞출 사장으로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선임했다. 반도체 제조와 생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닉스 DNA’를 접목해 성장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SK(株) 머티리얼즈 CIC를 이끌고 있는 송창록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했다. 송 사장은 첨단 소재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그룹의 핵심 미래 사업 중 하나인 소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종수 LNG 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임명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신성장을 모색을, SK스퀘어는 글로벌 투자 전문성을 갖춘 김정규 SK(株) 비서실장을 신임 사장으로, SK AX는 클라우드 및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김완중 CCO(최고고객책임자)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나무증권,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게

수수료 제로고침

신규 고객 및 조건 충족 시 (~12.31)

해외투자 새로그침

나무증권에서 경험하기

미국 주식 거래 / 환전
수수료 제로

\$30 투자 지원금
시작 부담 제로

최대 6만원 캐시백
시드 걱정 제로

AI투자 솔루션
투자 고민 제로

[이벤트 유의 사항] 수수료 제로그침 이벤트 기간: ~25년 12월 31일. 이벤트 대상: 당사 최초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조건 충족 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혜택 기간: 신규 고객은 계좌 개설 일로부터 12개월, 기존 고객은 26.02.28까지 [투자 유의 사항]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시 수수료 및 제비용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미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25%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미국주식 매도 시 SEC Fee(0.00278%)) (예시) 중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3%(선강릉/후강릉 동일,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중국 선강릉/후강릉 기준, 매수 시 Handling Fee 0.00341%, Securities Management Fee 0.002%, Transfer Fee 0.003%, 매도 시 Stamp Fee(인지세) 0.05%, 인/오프라인 동일)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중보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343호(2025-04-02~2026-04-02)

車·반도체 등 경영환경 긍정 평가 경제계 “실질적인 성과 창출 최선”

통상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K-기업 수출경쟁력 개선 기대

한경협 “양국 공동번영 원칙 확인”
상의 “첨단산업분야 협력 청신호”
경총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그동안 한국경제를 짓눌러왔던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결정이 늦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졌던 반도체 업계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르면 내달 1일 관세 인하… 한숨 돌린 산업계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 적용됐던 방식대로 한국 측이 협상내용을 이행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면 해당 월의 첫날부터 관세를 소급해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0% 품목관세’ 리스크를 떠안고 있던 반도체 업계도 관세 부담을 한시름 벗어나게 됐다.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대만과 견주었을 때 불리하지 않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은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타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은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세부적인 관세 적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앞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TSMC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 관세 협상 타결 환영

국내 경제 단체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논평을 통해 “양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달성한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

확인시켰다”고 환영했다. 한경협은 “미래 산업 협력 기반 확장, 첨단기술·조선·에너지 등 전략 분야 공동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한미 경제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와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의 협력이 한단계 더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한 데 대해 경총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합의가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선업 중심 산업협력 강화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시동

조선업계,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미국 내 조선 생태계 복원 적극 참여”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합의하면서 조선산업 부활을 상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가(MASG 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미국의 산업 재건 전략이 맞물리며 양국이 사실상 산업 동맹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결렬 우려가 제기됐던 한미 관세협상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3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율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중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마스가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격상됐다. 조선 협력 투자에는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뿐 아니라 선박금융과 보증이 포함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선박금융을 통한 장기 자금 조달 구조로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크게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과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이 결합된 상징적 프로젝트다. 미국이 조선산업 기반을 복원하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수출하는 형태로 맞물리며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조선국가으로 필라델피아 조

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배를 짓기 시작하고, 미국의 번영은 동맹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국내 조선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내 조선 생태계 복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는 이미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헨팅턴 잉글스(HII)와 상선·군함 설계 및 건조 협력 양해각서(MOA)를 체결했고,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에도 참여한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미국 조선소 인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AI와 자율운항,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미래 조선의 표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화 역시 미국 AI 자율운항 기업 해빅AI(HavocAI)와 손잡고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점으로 ‘K조선의 미국화’ 전략을 추진하며 마스가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술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은 관세 인화와 투자 안정성을 통해 수출 기반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선박 수요와 한국의 고부가 기술력이 결합하면 조선업 전반의 수주 파이가 커진다”며 “국내 조선소의 고용과 기자재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PEC 2025
KOREA



KOREAN AIR

함께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 목적지로

Together with APEC 2025 KOREA

같은 꿈을 향해 대한민국에 오신 세계 정상들을 환영하며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한항공이 응원합니다



삼성, 내년 HBM 물량 선주문 확보… AI 반도체 특수 지속

‘모든 고객사’ 언급에 엔비디아 시사 47조 투자로 DS·DX 동반성장 추진 2나노·HBM4 개발로 차세대 대응 AI가전·모바일 판매 확대 전략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강세에 따라 내년도 HBM 판매 확대에 대비한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분에 대한 수요도 이미 확보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12단 HBM3E를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언급해 엔비디아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삼성전자는 30일 2025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관련 쿼리스트(품질검증) 관련 이슈는 언급할 수 없으나 HBM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당사는 모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HBM3E 양산·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HBM을 구성하는 D램 수율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엔비디아 납품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모든 고객사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음을 시

사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고객 수요가 지속 접수되고 있어 HBM 증산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HBM과 컨벤셔널 D램 간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고려하며 증산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I산업 성장, DS·DX 새 시장 겨냥 47조 시설투자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디바이스솔루션(DS), 디바이스경험(DX)부문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시설 투자를 약 47조 4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DS부문이 40조 9000억원, 디스플레이(SDC)가 3조 3000억원 수준이다.

사업 부문별로 투자 방향과 세부 전략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AI 및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HBM3E와 고용량 서버 DDR5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는 고용량, 고성능 SSD 판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스템LSI는 프리미엄용 SoC와 이미지 센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에는 2나노 양산을 본격화하고 가동률 향상 및 원가 개선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DX부문에서 모바일경험(MX)은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 갤럭시 S25 시리즈와 폴더블 등 AI스마트폰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도 신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상디스플레이(VD)는 프리미엄 및 대형 TV 중심으로 성수기 수요를 선점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반도체 경기호조 지속

내년은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HBM4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1c 캐파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메모리의 경우 D램은 HBM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 기반의 HBM4 양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AI용 D DR5, LPDDR5x, GDDR7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는 첨단공정 기반의 서버 SSD와 고용량 QLC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스템LSI는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 탑재를 추진하고, 이미지센서는 2억 화소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에는 2나노 신제품과 HBM4 베이스 다이 양산에 집중하며 미국 테일러 팹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MX는 AI 리더십 강화를 통해 플래그십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XR 등 혁신 제품과 차세대 AI 경험을 제공하여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하고 매출 성장을 이어간다.

VD는 마이크로 RGB 등 혁신 제품으로 프리미엄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기능 강화와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냉난방공조(HVAC) 등 고부가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구미 하이테크밸리 ·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분양공고 -단독주택용지(일반 · 점포겸용)-

1.분양대상 토지

사업지구	구분	필지수	토지면적(㎡)	분양금액(억원)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공급방법
구미 하이테크밸리	단독주택(일반)	1	234	1.3	5백만원	추첨
	단독주택(점포겸용)	3	240~291	1.6~2.0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구미 확장단지	단독주택(일반)	31	307~480	2.3~3.7	1천만원	추첨
	단독주택(점포겸용)	1	283	2.5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 토지위치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 라고 함)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kwater.or.kr/land>) 분양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제한 등은 분양공고문 내용과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내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일정

구분	일정	장소
분양공고	25. 10. 31.(금) ~ 11. 10. (월)	신문 및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s://www.kwater.or.kr/land)
신청서 제출	25. 10. 31.(금) 10:00 ~ 11. 10. (월) 10: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가능 -납부계좌는 참가신청서 부여
신청예약금/ 입찰보증금 납부	25. 10. 31.(금) 10:00 ~ 11. 10. (월) 11:00	
입찰서 제출	25. 10. 31.(금) 10:00 ~ 11. 10. (월) 13:00	
추첨 개찰	25. 11. 10. (월) 13:00 ~ 25. 11. 10. (월) 14: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당첨자 확인 낙찰자 발표	25. 11. 10. (월) 16:00 이후 25. 11. 10. (월) 17:00 이후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분양계약 체결	25. 11. 11. (화) ~ 11. 18. (화)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구미사업단 (경상북도 구미시 첨단기업1로 5)

- 3.분양신청 자격 : 일반 실수요자(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단, K-water 임직원 본인 및 임직원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는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4. 대금납부 :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택 1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기납부	계약 체결시 납부 (10%)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80%)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10%)
분할납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내 3회 균등분할납부(매 6개월마다)	

※ 구미확장단지는 분양활성화 촉진책으로 대금납부시기 1년 거치 및 무이자할부 시행

5. 유의사항

- 신문공고문은 분양공고문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분양 방법, 유의사항, 처분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kwater.or.kr/land>)의 분양공고문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K-water 구미사업단 분양과 ☎(054)479-4216~18
-------	---------------------------------------

2025. 10. 31.

K water 구미사업단장

현대차, 美관세 여파에 이익 급감 영업익 2조5373억… 29% 감소

매출 46조7214억 역대 3분기 최대 EV·하이브리드 판매 25% 증가 분기 배당 2500원으로 상향 조정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는 30일 올해 3분기 매출액 46조 7214억원, 영업이익 2조 5373억원, 당기순이익 2조 548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9.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5.4%로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결과다.

현대차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우호적인 환율, 금융부분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기존 최대 매출은 지난해 3분기의 42조 9283억원이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CEO)는 “단탄한 비즈니스 펀더멘털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며 3분기 최대 매출을 거뒀다”며 “관세 등 시장 변수에도 불구하고 생산 전략 최적화와 파워트레인 다변화로 수익성 회복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3분기 글로벌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03만 8353대였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HEV)와 아이오닉9 신차 효과로 SUV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만 558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는 85만 7795대로 1.9% 늘었다. 신흥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2.4% 증가한 25만 7446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상용 포함) 판매는 25만 2343대로 25% 증가했다. 이 중 전기차(EV)는 7만 6153대, 하이브리드(HEV)는 16만 1251대였다. 유럽 중심의 EV 수요 확산과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가 주효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나, 매출 원가율은 전년 대비 2.1% 포인트 증가한 82.3%를 기록했다. 판매관리비는 16.9% 늘어나며 수익성을 악화했다. 평균 환율은 1385원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29.2% 줄어든 2조 5373억원을 기록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 3260억원, 2조 5482억원이었다.

현대차는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 리스크가 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연간 경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 주당 25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동기(2000원)보다 25% 늘어난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STAGE FOR NEXT STAGE

전 세계가 주목하는
APEC 2025 KOREA

천년의 시간을 품은 경주에서
경제, 문화, 기술의 경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세기를 향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K도 노력하겠습니다



美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韓 자주국방 역량강화 기대

李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서
“SSN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
요청 하루 만에 건조 허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이번 발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계를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가 협의 중인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며 저능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능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

다. 현행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능축우라늄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부분도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SSN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N 건조는 우리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SSN 건조를 추진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SSN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능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 이 비확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즉 동맹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 구상과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래식 무기 탑재형이라 하더라도 SSN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를 감안해 중국 견제를 돌파할 수단으로 한화오션을 지목하고 SSN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韓中 상호호혜적 협력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바라”

李 대통령,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
시진핑 주석, 11년 만의 국빈 방문
“APEC 가교로 지역협력 강화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가교로 미래지향적인 지역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

미가 있다”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국 새 정부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양자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국교 수립 이후 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공통점으로 ‘지방정부’에서 정치커리어를 시작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국민과의 소통 속에 민생 중심의 철학을 실천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상호 협력적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실용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글로벌 주요 경제체로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이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활발한 경제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양국은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

히 한중 간 생산·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짚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는 중국을 향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APEC을 개방적이고 활력과 평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APEC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서예진 기자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 법사위·과방위서 與野 공방 여전

與, 법사위서 대법원에 자료 요구
野 “권력 분립 파괴… 사법부 압박”
과방위선 최민희 위원장 논란 지속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쓴 소리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여당 간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며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의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때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은 누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들 때 국회의 권한도 포함된다.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했다. 핵심 이유는 ‘권력 분립

파괴’”라며 “김용민 간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판지를 걸었다.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NGO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

사진행 방해 행위였다”며 “위원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 ‘퇴거하세요’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졌다.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MBC 방문 당시 발언, 방심위 비판 보도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퇴장했다”며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니,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파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MBC 방문 당시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와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등 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세상에 가치를 더하다
posco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 성공을 포스코그룹이 기원합니다

꿈의 제철 기술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다

천년 전, 별을 관측하는 기술로 미래를 예측했던 첨성대처럼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HyREX)

수소를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제철산업 꿈의 기술

주택연금 이용률 2%대 공적·민간 투트랙 필요

노후 현금흐름 수단 제자리걸음
민간 역모기지 시장 사실상 정체
규제·데이터 한계로 보험사 소극
보험사 참여 위한 제도보완 시급

고령층의 노후 현금흐름 수단인 주택 연금이 이용률 2%대에 머물고 민간 역 모기지 시장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대한 대출규제 분리와 자본·데이터 인프라 보완을 통해 보험사 참여를 넓히는 ‘공적·민간 투트랙’ 전환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은 늘고 있지만 체감은 다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기준 가입률은 2023년 2.5%, 자가점유율을 감안한 실질 가입률도 3.3% 수준에 그친다.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 월지급금 122만원, 평균 담보주택 가액은 3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역모기지는 더딘 수준을 넘어 사실상 멈춰섰다. 시중은행 3곳(신한·국민·하나은행)의 최근 3년 취급은 12건, 2025년 5월 기준 대출잔액은 144억원에 불과하다. 공적 주택연금과 달리 민간 상품 상당수는 종신행이 아닌 최대 30년 만기 대출 구조여서 만기 상환 실패 시 퇴거·경매 위험이 따른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문제는 현 고령층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미국 22.8%, 일본 20.0%, 영국 1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를 크게 웃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현금흐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주택연금 이용률은 2%대에 묶여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 간 간극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주택연금 시장 비활성화의 원인으로 는 수요·공급 등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수요 측면에선 오해·정서·제도의 장벽이 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고령층은 주택연금 급여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자격에 불리할 수 있다는 오해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 선호가 강해 집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심리적 저항이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높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 구조 역시 체감 매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민간 주택연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는 반면 공적 제도는 예외여서 같은 ‘주택연금’이어도 진입장벽이 다르다.

공급 측의 장벽도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 시장은 주택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재무·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관련 데이터도 부족해 위험요인을 고려한 상품 설계가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 문제 해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자산 가치 미반영에 대한 오해 ▲상속 의지 등 수요 측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보험사의 장기리스크 관리 역량을 공적 제도의 사다리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적 보증의 독점 구조를 완화해 보험사의 보증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현행 신탁 외에 저장권 방식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 유동·유동화·리스크 배분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주택연금 참여가 미흡한 것은 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초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택금융공사의 독점적 보증 규정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보증사업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업계 1,2위 마저… 카드사 3분기 순익 ‘뚝’

신한 22.8%, 삼성 4.2% ↓
금융·대손비용 증가가 원인

주요 카드사들의 순이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대손 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신한카드·삼성카드·하나카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3분기에 신한카드 순이익은 13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순이익은 1617억원, 589억원으로 역시 각각 4.2%, 11.8% 줄어 들었다.

누적 순이익(올해 1~3분기)도 감소세다. 신한카드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80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2% 감소했다. 삼성카드는 4973억원으로 6.4% 줄었으며, 하나카드는 17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줄었다.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넘은 데 따른 결과다.

신한카드의 경우 3분기 영업수익은 1조318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92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할부금융수익(706억원)이 12% 증가하며 영업수익을 견인했다. 다만, 판관비와 수수료 및 기타 영업 비용이 각각 7.3%, 17.2% 늘었다.

삼성카드는 3분기 취급고(45조 6304억원)가 8.6% 증가해 매출액이 1조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 및 대손비용 등의 증가



주요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대출 광고. /뉴시스

로 영업비용이 매출액 증가분을 웃돌았다. 영업비용은 23.1% 증가해 600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비용과 판관비가 각각 16.9%, 13%씩 올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이용금액과 상품채권 잔고 성장으로 영업수익은 증가했으나,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카드 역시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 줄어든 2185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수료 감소와 보수적인 여신 건전성 중심의 운용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카드론 감소,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기조 등에 따라 카드사 전반 수익성 악화를 예상해 왔다. 영업력을 강화하고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수익성 반등이 어려운 업

황이 됐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순위 지형 변화도 감지된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6646억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1위였던 신한카드를 10년 만에 제쳤다. 당시 신한카드 순이익은 5721억원이었다.

이번에도 삼성카드가 신한카드와의 순이익 격차를 300억원 가량 벌리면서, 본격적으로 선두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신한카드는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함께 페이먼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원 기반 확대와 질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영식 내정

반도체 공정, 그룹 내 최고 전문가
성공적 IPO 추진 핵심 역할 기대

SK에코플랜트는 30일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사진)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비전과 성장 전



략을 구체화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 내정자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룹 내 최고 전문가다. SK하이닉스 포토(Photo)기술담당, 제조·기술담당, 양산총괄(CPO) 등을 역임하며 HBM 대량 양산체계 구축 등 성과를 창출했다.

SK에코플랜트관계자는 “김내정자는 기존과 차별화된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사업 기회 발굴 및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앞서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기반으로 SK에코플랜트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등 일익을 담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진행

소상공인 대상 경영정보 제공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자영업자의 경영에 해소를 지원하고 최신 마케팅 전략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을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영업개선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이번 맞춤교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H, 한국교육개발원 활용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총 700호 규모 공공주택 추진
인허가 기간 줄여 2028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를 활용해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과거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2017)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 뿐 아니라 인근 우면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LH

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지역 주민에게 쾌적

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서울도심 내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통해 2028년 상반기에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입지 여건을 갖췄다.

사업지구 인근에 양재역(2km), 양재시민의숲역(1.5km)이 있어 3호선 및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2km)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2km)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안상미 기자

APEC 2025 KOREA



찬란하게 빛날 내일 그 시작을 함께

함께 더 환히 빛나는 미래로 향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

APEC CEO 서밋

포스코-호주, 친환경 공급망 강화 수소철강·이차전지로 미래 선도

아태경제협력체서 비전 제시
한·호주 연대로 공급망 안정 모색
청정에너지·핵심자원 협력 본격화
경제 넘어 사회적 회복력 강화 강조

포스코그룹이 한국·호주 간 공급망 협력을 지속한다. 양국 간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탄력적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방한중인 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정상으로는 22년만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았다.

장 회장은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일자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간 공급망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공급망 건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국과 호주 간 협력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이 호주와 추진 중인 주요 협력 분야로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포항제철소에서 준비 중인 하이렉스(HyREX) 공정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호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청정 수소를 사용해 탄소저감 철강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포스코

이차전지 원료 분야에서는 호주 광산에서 채굴된 스포듀민을 들여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 중이다. 장 회장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협력이 리튬·니켈·희토류 등 미래 핵심 자원으로 확장되며 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2년 호주 한콕에너지와 함께 천연가스 개발·생산기업 세넥스에너지를 공동 인수했으며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이앤씨도 호주 내 수소 생산 혁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양국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호주 철광석과 원료탄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하이렉스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71년 호주 철광석 구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15억 톤 이상의 호주산 철광석과 원료탄을 사용해 왔다. 이는 한·호 자원·철강 산업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손꼽힌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으로, 핵심 광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총리와의 면담에서 "호주는 철강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성장산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권희·차현정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 수소산업 선도전략 공개 탄소중립 향한 글로벌 연대 강화

수소 경제 확산 글로벌 비전 제시
모빌리티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대
그린수소 생산 기술로 미래 주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인 'APEC CEO 서밋 2025'에서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21개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연결, 사업, 그 너머(Bridge, Business, Beyond)'로, 수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헬스, 금융·투자, 지속가능성 등 주요 글로벌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세션을 진행해 수소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위원회 CEO 아바나 제멜코바와의 대담에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는 수소가 있다"며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1998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축적해 온 수소 기술력과 투자 성과를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은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

또 엑시언트 트럭을 아산공장과 평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

현대자동차 장재훈 부회장이 30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공장부지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택항 간 차량 운송에 활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 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노르칼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30대의 엑시언트 트럭을 운영 중이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도 21대를 부품 운송에 투입해 친환경 물류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제주도에 5메가와트(MW)급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초격차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장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수소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인 수소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30년간 수소 산업에서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4년만에 '흑자전환'

OLED 중심 체질개선 결실

LG디스플레이가 4년만에 연간 흑자 전환에 사실상 성공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이 성과로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9570억원, 영업이익 4310억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조6092억원, 3485억을 기록했다. 이로써 4년만에 연간 흑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LCD TV 사업 종료로 인해 1% 감소했음에도 누적 영업실적은 약 1조원 개선됐다.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노력이 흑자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다.

3분기 매출은 전 제품군에서 OLED 패널 출하가 확대되며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전체 매출 내 OLED 제품 비중은 계절적 성수기에 더해 중소형 OLED 패널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기록했다. 제품별 판매 비중(매출 기준)은 TV용 패널 16%, IT용 패널(모니터, 노트북 PC, 태블릿 등) 37%, 모바일용 패널 및 기타 제품 39%, 차량용 패널 8%이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중공업, 장보고 II 침단화 추진

4689억 규모 성능개량 수주
전투체계·소나 등 최신헌
2033년까지 개량 완료 예정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잠수함 분야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468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성능개량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장보고-Ⅱ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이다. 전투체계, 예인선배열 소나, 기뢰회피 소나, 부이형 안테나 등 핵심 장비를 최신헌으로 교체한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장보고-Ⅰ(209급) 잠수함 성능개량을 수행한 LIG넥스원과 협력해 오는 2033년까지 성능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214급(배수량 1800톤급) 잠수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배치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독일 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공기불요장치(AIP)가 적용된 214급 잠수함의 선도함인 '순원일함'을 포함해 총 9척 가운데 6척을 건조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6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윤봉길함'의 시운전 모습.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선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해 향후 함정 사업 분야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H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합장·중형선 사업부 사장은 "이번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수주는 HD현대중공업의 잠수함 분야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214급 장보고-Ⅱ 잠수함을 장보고-Ⅲ급 수준의 첨단 잠수함으로 업그레이드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차, '일렉시오'로 中 전기차 공략

27분 급속충전 탑재한 신차
E-GMP로 승차감·안전성 ↑

현대자동차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 전략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전격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렉시오는 깔끔한 실루엣과 절제된 비율로 구성된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으며, 크리스탈 형태의 사각형 헤드램프가 특징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뛰어난 내구성의 차체 구조로 안전성도 높였다. 또 88.1kWh 배터리를 탑재해 722km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CLTC 기준)를 달성했고, 약 27분 만에 배터리를 3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는 ▲27인치 4K 대화면 디스플레이 ▲3단:1명암비를 갖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BOSE사의 8스피커 및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탑재해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차의 중국 현지 전략형 전기 SUV '일렉시오'

또 알렉시오는 패밀리카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적용했다.

먼저 가속 및 감속 시 차량의 반응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 '패밀리 브레이크 모드'를 적용해 운전자는 물론, 함께 탑승한 가족 모두의 피로도를 줄인다.

또 차량 내부에 총 46곳의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기본 506L의 트렁크 공간을 최대 1540L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측면 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총 9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도어 핸들 등 첨단 안전 사양도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

국내 최초 PEM 수전해 거점… 연 3만기 연료전지 생산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250명 참석
그룹 수소 브랜드 'HTWO' 적용
장재훈 부회장 “글로벌 생태계 확장”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생산 거점 설립을 본격화했다.

현대차는 30일 울산공장 내 수소연료전지 공장 부지에서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은 지상 3층, 연면적 9만 5374㎡ 규모로 현대차가 수소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건설하는 연료전지 및 국내 첫 PEM 수전해 생산 거점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원료를 가공하는 '화학 공정'과 완성된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 공정'을 통합해 연 3만기 규모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갖추 예정이며, '인류를 위한 수소'라는 의미를 담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브랜드 'HTWO'가 적용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오른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기현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30일 현대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모빌리티 등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차그룹

용된다.

현대차는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건설에 9300억원을 투자하며, 향후 시장 성장에 맞춰 생산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는 승용 및 상용의 차량 특성에 맞춰 이원화되

고, 상용 트럭과 버스, 건설 장비, 선박, 농기계 등 분야까지 적용 가능토록 설계 대 고객의 사용처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사장 등 경영

진과 임직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기현·박성민·윤종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장에 전시된 수소연료전지 및 PEM 수전해기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와 수소트럭,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수소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연료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살펴봤다. 특히 PEM(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기는 현대차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장재훈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사회 전환 의지를 담아낸 전략적 거점"이라며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선박 및 건설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연료전지를 공급함으로써 함께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시는 현대차와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수소 연료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든든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차… '가치의 시대' 진입

효율성·주행성능 등 가치 수요 증가
"친환경 넘어 새로운 선택지 자리"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감성적 가치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과거 유지비 절감과 보조금 지원이 소비자 선택의 핵심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가격 효율성, 주행 성능, 브랜드 경험 등이 전기차 선택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EV 트렌드 코리아 2025 조사에 따르면 '연료비 절감(60.2%)'이 여전히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지만, '주행 퍼포먼스(12.7%)'와 '디자인(6.4%)' 등 감성적 가치 요인이 빠르게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전기차가 더 이상 경제적 대안에 머물지 않고, 브랜드 경험과 감성적 만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서도 이 흐름은 뚜렷하다. 2025년 3분기(7~9월) 수입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총 3만3946대, 9월 한 달간은 1만 2898대가 판매되며 시장 성장세를 이끌



테슬라 모델 Y. /테슬라코리아

었다.

이 가운데 테슬라·폴스타·BYD 등 순수 전기차 브랜드가 시장을 견인했다. 세 브랜드는 전체 수입 전기차 등록의 약 81%를 점유하며, 단순한 판매 경쟁을 넘어 전기차 시장의 소비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테슬라는 가격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달 모델 Y 주니퍼(8361대)의 흥행에 힘입어 총 906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저가형 트림 모델 Y RWD가 전체의 88.3%(7383대)

를 차지하며 가격 경쟁력 전략의 핵심 역할을 했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퍼포먼스와 고급화 등 프리미엄 전략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폴스타 대표 모델 폴스타 4는 프리미엄 전기 SUV 쿠페로 최고출력 544마력, 최대토크 686 Nm, 제로백 3.8초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췄다. 9월 한 달간 361대, 올해 누적 1881대를 판매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실속형 모델로 대중화에 나서고 있다. 싸라이언 7은 449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중형 SUV급 차체(전장 4830mm)를 갖춰 테슬라 모델 Y보다 약 800만원 저렴하면서도 공간성과 실용성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의 시대에서 '가치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이제 유지비 절감 중심의 친환경 이동수단을 넘어 브랜드 경험의 무대이자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인텔릭스,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 양산

출하식 개최… 웰니스 시장 본격 공략

SK인텔릭스가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 양산 출하식을 갖고 웰니스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SK인텔릭스는 30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SK인텔릭스 화성캠퍼스'에서 SK네트웍스 및 SK인텔릭스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 협력사, 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엑스' 양산 출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웰니스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나무엑스는 ▲자율주행 및 100% 음성 컨트롤 기반 에어 솔루션(Air Solution) ▲비접촉식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등 AI 기술을 집약했다. 향후에는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씨큐리티, 뷰티, 명상, 핏케어, 슬립케어 등 다양한 웰니스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일상 전반을 케어하는 통합형 웰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 /SK인텔릭스

SK인텔릭스 관계자는 "나무엑스는 건강·생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안 내재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전문 컨설팅 업체인 EY의 보안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그 결과 국가 공인 보안 검증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IoT 보안 인증을 획득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스피드메이트, AI 기반 차량정비 서비스 선보인다

카카오 업무협약… 고객경험 혁신 맞춘

자동차 관리 기업 SK스피드메이트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카나나'를 운영 중인 카카오가 손잡고 차량 정비 경험의 혁신을 추진한다.

SK스피드메이트는 지난 29일 카카오와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AI 기술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스피드메이트는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의 정비고객에게 AI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카카오는 온·오프라인 연결을 통해 카나나 이용 고객에게 완결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카나나 사용자가 차량 관리에 대한 질문을 입력하면 AI에 기반한 진단과 대응방안은 물론, 인근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정비 안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나나와 스피드메이트를

연계한 정비 데이터 축적으로 엔진오일, 타이어 등 상품 추천 및 매장 예약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심리스 서비스로 개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양사 간 협력으로 AI 에이전트 카나나 사용자 중 차량 정비가 필요한 고객이 더욱 손쉽게 스피드메이트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나나 협력 모델을 통해 정비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 개선과 AI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소진공, '부담경감 크레딧' 누적 1조 돌파

소상공인 지원책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접수 개시 3개월 만에 누적 사용액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월14일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를 시작 뒤 현재까지 지급 업체 수 297만개사, 소비 금액 1조175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97만곳은 당초 목표한 311만1000곳 중 95.46%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4대 보험료, 통신 요금 그리고 차량 연료비 쓸 수 있는 50만원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진공은 부담경감 크레딧의 인기 비결로 '무서류 간편 신청 체계'를 꼽았다. 국세청과 정보 연계로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받은 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사업 초기 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참여가 이어진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AI 혁신’에 사라지는 일자리 아마존·구글 등 구조조정 바람

아마존, 최대 3만명 인력 감축
향후 운영 75% 로봇으로 자동화

AI 효율화 명분으로 해고 논란
전문가, 기술 독점체제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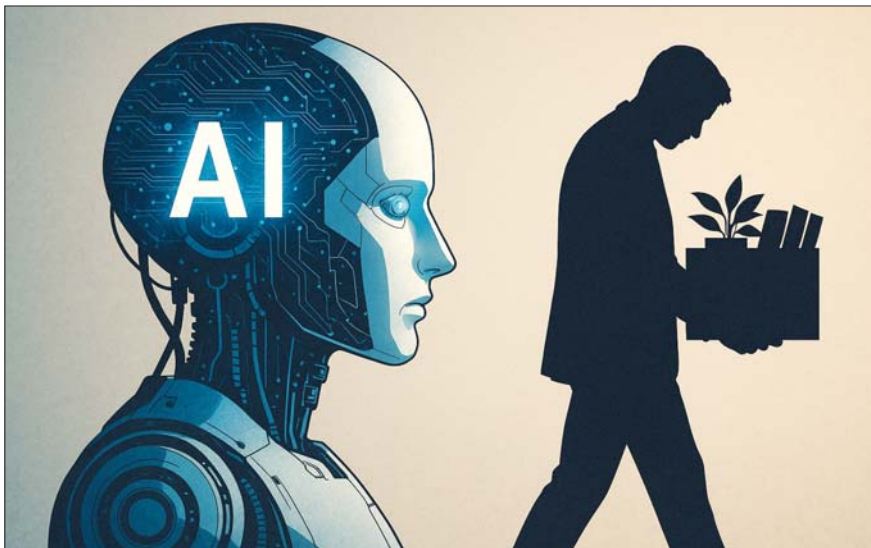
AI가 혁신을 부르짖는 사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AI 효율화’를 명분으로 최대 3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해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MS·메타·UPS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수 천 명의 직원을 줄이는 가운데, 공통된 이유는 하나다. 바로 AI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아마존은 인공지능(AI) 혁신을 내세워 본사 인력 최대 3만 명을 감원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력담당 수석부사장은 “AI는 인터넷 혁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살을 빼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물류·클라우드·광고 부문 전반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의 75%를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전체 직원 150만 명 중 50만 명을 AI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AI발(發) 해고는 아마존만의 일이 아니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PS는 올해에만 운영인력 3만4000명, 관리직 1만4000명을 줄였다. 메타는 AI 부문에서 6000명을 감원했다. 구글·MS·인텔·IBM·델·세일즈포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MS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유로 전 세계 인력의 4%인 9000명을 줄였고, 구글은 지식정보·마케팅 부문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발 해고’ 이미지.

메타는 “조직의 민첩성을 강화한다”며 3600명을 감원한 뒤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적이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77억 달러를 기록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964억 달러로 14% 늘었다. 메타 역시 매출이 22%, 순이익이 36% 상승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그만큼 이어지는 대규모 해고를 일반적인 비용 효율화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해고 바람이 실제로 ‘AI 패문’ 인지는 논쟁적이다. 옥스퍼드대 파비안 스테파니 교수는 “기업들이 AI를 좋은 변명으로 삼아 해고를 정당화한다”고 꼬집었다.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했던 인력을 정리하면서 ‘AI 효율화’라는 포장지를 덧씌운다는 비판이다.

예일대 버지캠프 연구 결과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챗GPT 등장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서 ‘AI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40%는 “해고는 없었다”고 답했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즉 ‘AI가 해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채용을 막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잇따라 경고를 냈다. IMF는 “AI는 단순노동뿐 아니라 고숙련 직종까지 자동화해 생산성과 실적이 상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AI 투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높아진다”고 지적했고, OECD 역시 “AI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90% 이상 직무가 단기간 내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보다 기술을 독점한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IMF와 BIS는 ▲실직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재교육 및 직무 전환 훈련 확대 ▲AI 인프라 접근성 공공투자 확대 ▲AI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3분기 누적매출 4.2兆 기록

금융·공공 AX 사업으로 입지 확대
클라우드 섹터 등서도 성과 입증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4조 1939억원, 영업이익 3399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영업 이익은 8.7% 증가했다.

◆AI·클라우드 매출 지속 성장…AX 사업 확대

LG CNS의 주요 성장 엔진인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7% 늘어난 2조4692억원을 달성했다.

AI 영역에서는 금융·공공 AX 사업을 확대하며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금융 영역의 AI·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외교부, 경기도교육청, 경찰청, 기상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주요 공공 부문 AX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국가대표 소버린 AI 모델 ‘엑사원’, 코히어와 공동 개발한 초대형·경량형 거대언어모델(LLM) 등 다양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클라우드 섹터에서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사업자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우정통신그룹,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과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 개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대한항공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클라우드 사업 역량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K-산업 투자 확대 수혜…포트폴리오 다각화

스마트엔지니어링 분야의 3분기 누적 매출은 7794억원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팩토리 섹터는 상반기 수주한 방산(스마트엔지니어링 사업), 정유(디지털트윈 사업), 공공(강원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무인운송로봇 사업), 제약(생산관리시스템 사업) 부문에서도

추가 수주를 따내며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또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위한 경량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을 완료해 첫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물류 섹터는 북미 2차전지 제조 확대에 따른 공정 물류 사업을 발판으로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뷰티·푸드·패션·방산 등 K-산업 성장 기반 물류 투자 증가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3분기 누적 매출은 9453억원을 기록했다. LG CN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K-뱅크 시스템 수출을 선도하며 글로벌 금융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은행 차세대 카드 시스템, 싱가포르 현지에서 글로벌 은행 뱅킹 현대화 사업을 수행 중이며, 디지털 화폐(CBDC) 플랫폼을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유통하는 ‘프로젝트 한강’ 2차 시험 사업도 수주했다.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 성장 동력인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사업도 순항 중이다. LG CNS는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와 업무 혁신 서비스 ‘에이엑스 씽크’를 출시해 에이전틱 AI 사업을 본격화했다. 에이전틱웍스의 경우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념 검증을 추진 중이며, 에이엑스씽크는 LG 계열사 및 대외 고객 약 20곳과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시간을 6~12개월로 줄이는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 ‘AI 박스’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의 RX(로봇 전환) 사업도 펼쳐지고 있다. LG CNS는 글로벌 톱 티어 AI 로봇기업 스킨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조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유해물질을 다루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작 정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협로 주행 소형 자율이동로봇 사업 등 다양한 로봇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산업 전반에서 RX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최수연 “로컬문화, IP·콘텐츠 되도록 지원”

〈네이버 대표〉

최 대표, 경주 ‘비로컬위크’ 현장 방문
단말기에 ‘N pay 커넥트’ 시범도입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APEC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경주를 찾아 로컬 사업자들과 만나고, 디지털 생태계에서 로컬 콘텐츠가 지닌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다.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28일 경주 황리단길에서 진행 중인 네이버의 ‘비로컬위크(Be Local Week)’ 현장을 방문해 청년 예술가와 로컬 SME가 운영하는 ‘청년감성상점’을 둘러보고, 지역 상인 및 창작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로컬의 문화와 역사가 곧 지역의 IP이자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의 AI 기술과 지도, 페이 등 탐네이버의 역량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로컬위크’ 참여 매장 일부에는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캠페인 현장에서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로 결제를 진행 중인 최수연 대표.

/네이버

인 ‘Npay 커넥트’가 시범 도입돼,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결제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로컬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전통과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비로컬 캠페인’의 출발지로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청년과 소

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도록 경주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황리단길 일대에서 ‘비로컬위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향후 전국 각지로 캠페인을 확대해, 지역 SME들이 로컬 특색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 AX, 신임 사장에 김완중 CCO 선임

디지털 전환, AI 혁신 주도해와

SK(₩) AX는 30일 김완중 최고고객책임자(CCO·사진)를 신임 사장으로 승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앞으로 제조·통신·금융·에너지·서비스 등 핵심 산업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중심 고부가 가치 사업 모델 확대와 고객 성과 창출을 책임지게 된다.

김 사장은 SK C&C(현 SK AX)에서 회사와 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주도해 왔다.

SK AX는 “김 신임 사장은 지난 2020년부터 SK C&C 클라우드 부문을 이끌며 SK그룹과 주요 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클라우드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2023년부터는 SK AX CCO로서 AI·클라우드



드·데이터를 통합한 AX 플랫폼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비용 최적화, 품질 고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그룹과 대외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AX 확산을 선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장 선임을 통해 SK AX는 그동안 축적한 AI 역량을 한 단계 진화시켜, 국내 주요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수익 모델을 AX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중 사장은 “SK AX는 AI 플랫폼과 산업별 실행 모델을 결합한 AX 혁신 체계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들을 기반으로 AX 확산 속도를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증권사 7곳 CEO 임기 끝... 실적·내부통제로 거취 갈릴듯

NH·한투 내부리스크 제동에 불안
미래·대신 무난한 실적 연임 유력
KB·하나 실적둔화로 교체 위기감
당국, 내부통제 강화·리스크관리 압박

국내 주요 10대 증권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증시 호황 속 실적 성과와 내부통제 리스크가 희비를 가리며 각사 대표들의 거취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CEO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총 7곳이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올해 연말, 나머지 5곳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NH투자증권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임기가 반 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여의도 소재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을 총괄하는 현직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 등을 이용해 2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10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 현황〉

〈2026년 3월 임기 만료〉						〈2025년 12월 임기 만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윤병운 NH투자증권	장원재 메리츠증권	오익근 대신증권	김성현 KB증권	이흥구 KB증권	강성목 하나증권

다.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여부까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자체는 뛰어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1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4651억원을 기록하면서 10% 늘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부통제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김성환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투증권은 올해 역대급 성과를 보이면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1조원을 넘겼다.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252억원, 영업이익은 1조14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4.2%, 48.1%씩 늘었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게다가 5년치 대규모 회계 오류도 발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섭, 허선호 각자 대표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미래에셋증권은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내부통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올해 3월에도 연임에 성공하며 임기가 1년씩 연장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664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3% 급증한 성과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3조7475억원, 영업이익은 8466억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보다 24.9%, 55.7%씩 증가한 수준이다.

장원재, 김종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 메리츠증권은 장 대표의 임기 종료가 먼저 다가온다. 세일즈&트레이딩(S&T)·리테일(개인판매) 부문을 맡고 있는 장 대표의 핵심 프로젝트인 '수수료 완전 제로' 프로모션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내부 비리 사건과 남아 있는 이화전기 관

련 의혹은 부담으로 보여진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별다른 내부통제 이슈가 없었으며,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4.6% 성장한 152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연임을 방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오히려 후퇴했다. 두 증권사 모두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증권은 현재 각자 대표 체제로 김성현 대표는 IB·자산운용을, 이흥구 대표는 리테일을 담당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부문별로 희비가 갈린다는 것이다. KB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상반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9.9%, 11%씩 감소했다. 다만 리테일 부문은 상반기 영업이익 2146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상반기 1784억원 대비

20.3% 증가했다.

하나증권은 트레이딩 부문 수익부진과 해외자산 손실발생이 주요 원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하나증권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068억원, 1188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18.6%, 26.1% 감소했다. 사실상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 역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인가 절차를 재개하면서 대형사들은 신규사업 진입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하고 있다. 새 정부가 미흡한 내부통제를 지적했던 만큼 증권사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CEO 교체 시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실적 윤곽은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대부분 IMA·발행어음 인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 선정에서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디지털자산, 미래 금융의 연결고리 될 것”

두나무,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 개최
기술·금융·시장·사람 잇는 다리 강조
케이스·채터튼 등 글로벌 리더 참여

“디지털 자산은 더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가 됐다. 오늘의 대화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를 넘어 미래 금융의 모습 자체를 재정의하는 여정이 될 것.”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30일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공식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Future Tech Forum: Digital Asset)'에서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한 별도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건 국내 최초다.

올해 '퓨처테크포럼'은 조선, 방산, 인공지능(AI), 미래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포함돼, 그간 실물 산업 중심의 논의가 이어져 온 APEC 무대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포럼은 'Connecting the Future of Finance(미래 금융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AI,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등 디지털자산이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질서와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오 대표는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 새 생태계의 출발점



오경석 두나무 사장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디지털 화폐와 국제 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포럼 기조연설은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을 주제로 마이클 케이스 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겸 Advanced AI Society 의장)이 맡았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융합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에서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가 좌장을 맡아 루 인 솔라나 재단 총괄, 폴 블루스타인 CSIS 연구원, 마이클 케이스 수석고문이 참여했다. 블루스타인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달러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고, 루 총괄과 케이스 고문은 "법과 기술의 결합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

다"고 맞섰다.

두 번째 세션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에서는 이사벨 채터튼 ADB 총괄과 엘리자베스 로시어로 AZA파이낸스 CEO가 금융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 '제도화와 융합'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대니 찬 마스터카드 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윤 CBIO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억원, 모험자본 공급 속도전 종투사 신속지정·공모펀드 강화

금융위, 종투사 지정·인가 병행
공모펀드로 국민투자 저변 확대
PEF엔 책임투자·신뢰 정착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모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17개 증권사·운용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졌다"며 "우리 경제가 인공지능(AI)과 양자역학 등 초기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개발 기간이 길며 초기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하는 자본이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생태계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투자업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된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와 개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 대 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자금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이 IMA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4조원 이상 종투사인 삼성·하나·신한·메리츠·키움증권 등도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의 투자가 업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어려운 시기 정부, 이차전지산업 도약 뒷받침”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재도약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시장창출 필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Invest KOREA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정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인 배터리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축하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의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배터리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총 20명의 산업유공자를 포상했다.

박진 삼성SDI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에너지밀도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ESS 안전성 표준화를 선도해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20분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에너지밀도 및 장수명 배터리를 개발·상품화해 글로벌 완성차 OEM의 대규모 수주를 이끌고, 각형 기반 스택(Stack) 구조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13~17% 향상시키는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성군 엘앤에프 사장은 산업포장을, 오승모 민테크 최고기술자문(서

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장 사장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개발 및 수출 확대를, 오자문은 리튬이차전지 기초연구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이밖에도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센터장, 김점수 동아대 교수 등 17명이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배터리협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민·관 합동 배터리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켄터키·오하이오·인디애나 등 7개 주를 방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지 및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명 배터리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판 IRA(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ESS와 BaaS(배터리서비스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원재료 국산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에 업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사업체 종사자 수 올해들어 처음 증가세

고용부,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건설업 부진으로 이어지던 감소세가 완화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만명(0.2%)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5만5000명 감소한 이후 8월까지 반등하지 못했으나, 9월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동부는 “건설업 감소폭 축소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는 6만1000명

(-4.2%) 줄었지만,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제조업도 6만명 감소에 그치며 8월(-1만9000명)에 비해 낙폭이 완화됐다. 특히 건설업의 채용 인원은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7%) 늘어 회복 기대를 키웠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8000명(4%) 증가해 올해 최대폭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해당 업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향후 고용 흐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예측은 어렵지만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7%(6만7000원)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338만1000원으로 0.1%(2000원)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전기사용 줄이고 캐시백 받아요”

‘에너지캐시백’ 가입 이벤트

한국전력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전기 절약에 동참하면 전기요금 감면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전은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에너지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열고, 기간 중 신규 또는 기존 가입 고객 650명을 추첨해 스탬바이미GO, 음식물처리기,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의 전력사용량

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절전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 시 kWh당 30원,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절감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현재 전국 약 155만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참여 가구 대부분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등록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정보·경제적 대가 숨기면 기만광고”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기만적 광고 세부 심사기준 명확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가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개정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기만적 광고’의 세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

락을 기만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한 점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

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수량’, ‘금일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 조건의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기만적 광고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우’ UAE 수출길… 19억 할랄시장 진출

농식품부, 초도물량 1.5t 첫 수출

국내 대표 한우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오르며, 19억 인구의 할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UAE 한우 수출 선적기념식’을 열고,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 초도물량 약 1.5t을 처음으로 수

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로 한우는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UAE까지 총 5개국으로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다.

UAE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로, 소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호주·미국산 소고기의 점유율이 높지만, 최근 일본산 프리미엄 소고기에 대한 수요

가 급증하면서 한우와 같은 고급육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달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우 미식 체험단’을 운영하고 요리교실·미식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우의 맛과 품질을 직접 알릴 예정이다. 또한 관광업계와 협력해 소비여력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농수산물유통공사 ‘K-푸드 글로벌 수출전략 설명회’에 해외지사장들이 참석해 있다. /aT

aT,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 전략 공유

19개 해외지사장 ‘수출전략 설명회’

해외K-푸드 수출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19개 해외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T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K-푸드 글로벌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19개 해외지사장 및 150여 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

해 마련됐다. 무역수출 전문가들이 직접 기초강연에 나서 K-푸드의 신시장 개척 전략과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자로 나선 박철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K-푸드 영토 확장 방안’을 주제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법률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K-푸드 대미 수출 기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뤘다. 최근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등 규제 변화와 검역 강화 등 장애 요인을 진단하고, 해외공급업체검증제(FSVP) 규정 준수 등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국립대 10개 육성 시 사립대 고립… 대학 특성화 유도해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논쟁
홍대 미대처럼 강점 중심 성장 지원
연내 지방대 경쟁력 강화안 발표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도 도마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국립대 중심의 육성정책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처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던 사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라며 “지역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대학 육성과 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국립대 10개를 육성하겠다고 하면, 사립대 비중이 80%인 현실에서 사립대는 다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국립대에만 치우치면 사립대 고립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만 6000억~1조원 가까이 지원하면서도 QS(세계대학평가)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따라가는 백화점식 정책을 반복하면 안 된다. 과거 홍익대 미대,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처럼 대학별 특성화가 강화됐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많이 드는 기초과학은 국립대에서 맡고, 사립대는 특성화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식으로 일률적 확대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최초로 제안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은 단순히 국립대 확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대처럼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 중심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구상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유니콘 정책’으로도 언급되는 만큼, 교육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재 수요에 맞는 전략적 대학 육성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간 통화와 관련한 ‘학폭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장 전 수석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폭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김 여사가 전화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학폭 무마나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틀 뒤, 일면식도 없는 차관에 게 영부인이 전화를 건 것이 정상적인 행위냐”고 질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가의 통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7월 경기 소재 A초등학교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 이후, 김 여사가 장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학폭위는 두 달 뒤 열린 회의에서 ‘강제전학’보다 낮은 ‘학급교체’ 처분을 결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5兆 편성 약자돌봄·일자리 확대 등 민생 집중

‘약자와의 동행’에 8601억 증액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재난 대응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 회에 제출한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는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500억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예산안 중 순계예산 규모는 46조547억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4513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교육·청·차지구 지원 예산 및 재무활동·행정운 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7683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 공공일자리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 전년 대비 8601억원 증액(5.8% ↑)한 15조 6256억원을 투입한다.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7645억원)하고 돌봄SOS(361억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주말특화형(야외·가변형), 공원형(실·내외 연계) 등 다각화하고 지난달 기준 3만6000명이 가입한 ‘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원)한다.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622억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 나간다. ▲소상공인 종합지원(311억원) ▲신규 융자 확대(487억원) ▲공공배달서비스 홍보·페이백(35억원)도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를 전년 대비 1만 6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2만 5234개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재난 선제적 대응 등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도 다변화되는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안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는 상·하수도관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GPR·현장점검단 운영 등 점검수단을 다각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AI·이공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투자에 집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RISE, 이공계 장학금 3종 세트’로 인재를 양성(1315억원)하고 미래산업 R&D 예산 497억원 중 1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밝아야 할 빛은 늘리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밝아야 할 빛은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 추진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문의와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으로,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된다.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및 추진 지원 ▲정책 연구·개발 ▲주택공급 및 이주수요 분석 ▲정보제공 및 민원 상담 등 주민 밀착형 현안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정식 개소식은 11월 5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제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센터 개소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 재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기숙사 설치 허용

세부기준 마련해 실효성·안전성 ↑

포천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도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천시는 이러한 규제가 3디(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검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속용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추후 제조업소의 용도를 음식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속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발효·원료·기능성 갖춘 식품업계…‘K-뷰티’로 영토 확장

hy 이터뷰티 ‘엠프로’ 시리즈
피부특화 유산균 활용제품 선배
신세계푸드 색조 ODM 전문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에 500억 투자
하이트진로 비엔비코리아 인수

내수 침체로 수익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식품기업들이 기존 먹거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건강·기능성·라이프케어로의 확장을 모색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화장품 제조, 이너뷰티, 제조자개발생산(ODM)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뷰티 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K뷰티의 수익성과 브랜드 파워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발효유와 유산균 기술로 잘 알려진 hy는 기능성 식품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먹는 뷰티’와 ‘바르는 뷰티’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장이 건강하면 피부도 좋아진다’는 이론을 토대로 이너뷰티



엠프로 프로바이오틱스 월+ 이미지.

/hy

라인 ‘엠프로’ 시리즈를 출시, 피부 특화 유산균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자사 브랜드 ‘프레딕뷰티’를 통해 유산균 HY714를 화장품 원료로 적용한 앰플·선에센스·모델링팩 등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뷰티 시장에 진입했다. hy는 외부 화장품 전문 기업과 협업해 유산균 대사물질을 피부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 섭취(이너뷰

티)와 도포(스킨케어)를 아우르는 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국내 4위 색조 화장품 ODM 전문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뷰티 시너지2025’ 사모펀드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는 형태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매출 2829억원, 영업이익 290억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색조 브

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처 발굴 차원에서 성장성이 높은 화장품 산업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는 앞서 급식사업부를 아이유포에 매각해 확보한 현금을 이번 투자에 활용했다.

하이트진로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통해 지난해 SKS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화장품 제조사 비엔비코리아를 1200억원에 인수했다. ‘마유크림’으로 잘 알려진 비엔비코리아는 현재 달바글 로벌 등 주요 브랜드에 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장을 추진 중이다. 당시 회사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신사업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자회사 ‘제주용암수’의 미네랄 성분과 청정 이미지를 내세워 ODM 방식의 화장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정관상 사업 목적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추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주용암수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 자원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식품기업들의 잇따른 행보는 K뷰티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와 맞물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 처음으로 수출국 1위에 오르며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가 북미·유럽·중동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K뷰티 파워와 높은 수익성이 식품 기업에 매력적인 신성장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품기업이 가진 발효·원료·기능성 기술이 이너뷰티나 스킨케어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푸드와 뷰티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민왕일
현대리바트
대표이사(내정) 사장



이진원
현대L&C
대표이사 부사장



이종근
현대지에프홀딩스
경영전략실장 부사장



유재기
현대에버다임
대표이사(내정) 전무

현대리바트 대표이사에 민왕일 내정

현대백화점그룹, 2026 임원인사
사장·부사장 승진 등 총 48명 규모

30일 현대백화점그룹이 내년 1월 1일부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장 1명, 부사장 2명을 포함해 승진 27명, 전보 21명 등 총 48명 규모로, 인사 폭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대리바트 민왕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민 신임 사장은 1993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회계·재무·기획조정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재무통으로, 향후 리바트의 수익성 강화와 B2B·리빙사업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L&C 이진원 전무와 현대지에프홀딩스 이종근 전무가 각각 부사

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원 부사장은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리바트를 거쳐 2025년부터 현대L&C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이종근 부사장은 그룹 경영전략실 출신으로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을 주도해왔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유재기 현대에버다임 전무가 내정됐다. 유 내정자는 현대그린푸드 출신으로 경영지원과 영업본부를 두루 거친 내실형 경영 전문가다.

그룹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화점, 홈쇼핑, 그린푸드 등 주력 계열사 경영진을 유임시켜 안정 경영에 방점을 뒀다”면서 “동시에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경영주 동반성장 ‘상생선언’

이마트24가 경영주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선언’을 발표했다.

이마트24는 30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경영주와의 공존공영 가치실현을 위한 상생선언’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저수익 점포 경영주를 위한 로열티 타입 전환 등을 도입하며 상생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마트24는 수익 개선이 필요한 개인

임차형 타입(월회비 160만원) 점포 중 가맹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잔여 계약기간까지 로열티 타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열티 타입으로 전환 시 기존의 월회비 대신, 매출총이익을 경영주 71%, 본사 29%비율로 분배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영주의 실질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韓 감성·품미로 균형잡은 ‘국내 한정원두’

Q 르포

스타벅스 ‘별빛 블렌드’ 공개

“내추럴 가공의 깊은 향과 워시드 가공의 깔끔한 마무리가 공존하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하는 균형감을 보여주는,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블렌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아카데미 센터’에서 새로운 한정 원두 ‘별빛 블렌드(Starlight Blend)’를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원두 출시를 기념해 마련된 ‘커피 엑셀런스 저니 클래스’로, 커피를 향한 스타벅스의 철학과 정교한 블렌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별빛 블렌드는 스타벅스 코리아 개점 26주년을 맞아 국내 MD팀이 직접 기획하고, 글로벌 스타벅스 커피 개발자들과 약 1년 6개월에 걸쳐 공동 개발한 원두다.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전용 블렌드’로 2021년 출시된 ‘별다방 블렌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한국 한정 원두다.

이날 클래스는 스타벅스 커피 엑셀런스 센터의 코칭 아래 ▲별빛 블렌드 소개 ▲나만의 커피 취향 탐색 ▲바리스타 체험(에스프레소 추출·라떼아트) 순으로 진행됐다. 커피 엑셀런스 센터는 전국 2000여 개 매장 파트너들에게 커피 교육과 품질 코칭을 제공하는 스타벅스의 핵심 교육 기관이다.

올해 21대 커피 앰버서더로 선발된 ‘베키(Becky)’ 파트너는 “최근에는 원산지보다 가공방식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별빛 블렌드는 콜롬비아 단일 원산지이지만, 두 프로세스를 혼합해 한층 입체적이고 독특한 풍미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제품의 콘셉트를



베키 앰버서더가 별빛 블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커피 엑셀런스 저니 클래스’ 개최 국내MD팀 기획 1년6개월 간 개발

4년만에 국내한정 원두 선보여 콜롬비아산 원두 두가지 방식 가공



별빛 블렌드로 만든 라떼.

‘한국의 감성과 품미를 동시에 담아낸 커피’로 정의했다. 패키지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경복궁, 한옥, 그리고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핑크빛 일출·일몰 배경과 함께 담겼다. 이는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이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준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다.

별빛 블렌드는 콜롬비아산 원두를 ‘내추럴(Natural)’과 ‘워시드(Washed)’ 두 가지 방식으로 가공한 것이 특징

이다. 내추럴 방식은 커피체리를 햇빛에 그대로 말려 과육의 단맛과 목직한 바디감을 살리고, 워시드는 물로 세정해 깔끔하고 청량한 피니시를 구현한다. 두 방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한 잔 안에서 부드러운면서도 복합적인 향미를 느낄 수 있다.

이어진 ‘나만의 커피 취향 탐색’ 세션에서는 스타벅스의 4가지 원두를 블라인드로 시험·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리스타 체험에서는 리저브 매장에서 사용하는 블랙이글 에스프레소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스팀 우유를 더해 라떼 아트를 완성했다. 완성된 별빛 블렌드 라떼는 크림미한 우유의 부드러움 속에서 한라봉을 연상시키는 산뜻한 산미와 딸기 웨이퍼 같은 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딸기 크림치즈 케이크를 마시는 기분이 들게 했다.

한편, 별빛 블렌드는 출시 직후 일주일간 ‘오늘의 커피’로 제공됐으며 현재는 원두 제품으로만 판매 중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별빛 블렌드가 또 하나의 대표 원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커피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며 말했다. /신원선 기자

HK이노엔, 전문의약품 사업 순항 3분기 호실적… ‘1조 클럽’ 가시화

3분기 매출 2680억, 영업이익 259억
케이캡 등 글로벌 처방 매출 견조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역량 집중

HK이노엔이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2608억원과 영업이익 259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771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708억원에 달한다. 누적 실적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1% 커졌다.

특히 HK이노엔의 전문의약품 사업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전문의약품 매출(206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90% 수준에서 올해 3분기 94% 수준으로 확대됐다.

해당 사업 대표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처방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졌다.

케이캡은 올해 들어 1분기 514억원, 2분기 533억원, 3분기 561억원 등으로 매분기 500억원대의 처방 매출을 냈다.



‘HK이노엔 스케어’ 전경. (원형사진) 과달원 HK이노엔 대표 /HK이노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처방 매출은 1608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처방 매출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케이캡은 국내 처방뿐 아니라 해외 판매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HK이노엔은 현재 해외 53개 국가와 케이캡 기술수출 또는 완제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중남미 등으로도 입지를 넓혔다.

이와 관련 HK이노엔 측은 “케이캡의 중국 로열티가 전년 대비 고성장하면서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 수익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약물 유효성,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HK이노엔은 최근 케이캡 적응증을 추가하는 임상 3상을 종료했다. 이 임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장기 복용으로 인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HK이노엔은 올해 안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적응증에 대해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여섯 번째로, 허가 획득 시 케이캡은 국산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HK이노엔은 케이캡을 앞세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케이캡 뒤를 이을 후속 파이프라인을 자체 구축하는 데도 역량을 쏟는다. 특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을 갖춘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IN-B00009’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도 임상 3상에 본격 돌입한다. 해당 물질은 현재 사람용 연고제와 반려동물용 경구제로 동시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HK이노엔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K신약의 입지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SK팜테코, ADC 시장 공략 맞손

CDMO 종합 서비스 공동제공 방침

롯데바이오로직스는 SK팜테코와 글로벌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업무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결식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 ‘CPhi 월드와이드 2025’ 행사장 내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글로벌 시장 내 잠재 고객사들에게 다양한 ADC 특화 솔루션을 갖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종합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확보한 제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 제조부터 접합에 이르는 ADC 주 공

정 특화CDMO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팜테코는 ADC 구성 요소인 링커, 페이로드 등 화학적 합성 공정을 담당한다.

두 회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의약품 화학·제조·품질관리(CMC)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개발과 제조 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 기술·운영 플랫폼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시러큐스 생산 시설, 항체 접합 설비, 글로벌 고객 대응 경험, 미국 식품의약품(FDA) 실사 무결점 통과 등 글로벌 바이오 CDMO로서의 경쟁력을 알리며 수주 활동을 펼친다.

박제임 롯데바이오로직스대표는 “같은 첨단 모달리티 치료제 시장 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K바이오의 저력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보령-줄리파마, ‘알림타’ 동남아시아 공급

〈세포독성항암제〉

CDMO 계약… 이익 성장 본격화 기대

보령은 아시아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 줄리파마와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알림타’ 동남아시아 공급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은 오는 2027년부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7개 국가에 알림타 주사제를 공급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생산은 보령 예산 캠퍼스를 통해 진행된다.

보령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각 국가에

서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은 오리지널 의약품 비즈니스 인수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 알림타의 국내 권리를 인수해 자사 생산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액상 제품 출시를 통한 제형 개선까지 수행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생산과 연구개발 모두에서 내재화에 성공해 사업적 부가가치를 높였다. 세포독성항암제 공급 경험을 축적하며 수급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글로벌 경쟁력 긍정적 영향”

韓美 관세협상 타결

제약바이오협회, 환영의 뜻 표해
“바이오시밀러 등 무관세 유지 기대”

K제약·바이오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 의약품 관련 관세 협상’이 타결된 소식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논평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

혔다.

특히 협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

다”며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의약품 수출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의약품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인허가 및 현지 유통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크리스마스 시즌 돌입

스타벅스 코리아가 30일 겨울 프로모션 라인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의 막을 올렸다. 이번 겨울 프로모션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오랫동안 사랑받은 퍼즐 그림책 시리즈인 ‘월리를 찾아라’와의 협업으로 꾸며졌다.

/스타벅스코리아

삼성바이오에피스, 美 ‘아버 바이오테크놀로지’ 투자

유전자 편집 분야 등 협업 모색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라이프 사 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벤처 기업 아버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버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유전자 위치를 인식하고 절단해 해당 위치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 삭제, 변형, 치환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하고

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성 난치 질환, 혈액 질환, 암, 선천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 치료와 예방에 활용된다.

아버 바이오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반 예측 기법과 고속 실험 검증도 적극 활용, 다양한 크기와 기능의 최적화된 효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인간 유전체에 대한 편집이 가능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Enable팀장 김윤철 상무는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 연관 질병 치료의 핵심 기술이며 아버 바이오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높은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동국제약, 신개념 스킨부스터 ‘마데키엘’

미용·피부의료 시장 본격 진출

동국제약이 신개념 스킨부스터 ‘마데키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데키엘은 스킨부스터 제품이다.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셀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과 고순도 키토산 기반 이중 제형(리퀴드 투 젤)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갖췄다.

‘마데키엘’이라는 브랜드명에도 동국제약의 마데카와 키토산으로 구성된 하 나밖에 없는 유일한 스킨부스터라는 의미를 담아 제품력을 표현했다.

동국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국내 미용·피부의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LG전자, 장애청소년 IT 활용능력 높여 사회진출 지원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16개 국가, 92명 청소년 참가
AI·코딩 등 4개 종목서 겨뤘

LG전자가 장애청소년들이 IT 역량을 기반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을 열고 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LG전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이하 GITC)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30일 밝혔다.

GITC는 세계 장애청소년들의 IT 활용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을 돕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진행돼 온 세계 유일 장애청소년 국제 IT 대회다. LG, 보건복지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LG전자, GITC 조직위원회 등이 주관한다. 참가국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넘어



LG전자가 개최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크리에이티브 스마트카 챌린지’ 종목에 참가 중인 모습. /LG전자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까지 14년간 40개국 4500여명 장애청소년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이자 부대행사 가운데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16개 국가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체·시각·청

각·발달장애 청소년 92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등을 다루는 e컴비네이션 챌린지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크리에이티브 스마트카 챌린지 ▲기술 아이디어와 IT 역량을 다루는 e크리에이티브IoT 챌린지 ▲영상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콘텐츠 챌린지 등 총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시범 종목으로 AI를 활용한 반응형 게임을 제작하는 코딩 능력 챌린지도 처음으로 열려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전무는 “GITC를 통해 IT 분야에 꿈 가진 청소년들이 장애를 딛고 사회에 진출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우리는행-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육성

우리는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략산업 분야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연수 우리는행 기업그룹장(오른쪽)과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는행



농심,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인정 받아

농심은 전날 서울 청계광장서 열린 ‘2025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에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심은 ‘이머전시 푸드팩’ 등 식품기업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심

종근당고촌재단, 필리핀서 ‘고촌상 시상식’

결핵종식 기여한 인도 분자진단 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수상

종근당고촌재단은 29일 오후 7시(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고촌상은 ‘결핵 종식을 위한 신기술 도입과 실행과정에서의 혁신 및 성과’를 주제로,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 ‘Truenat’ 개발을 통해 글로벌 보건진단 체계 강화에 기여한 인도의 분자진단 전문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Molbio Diagnostics)’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의 ‘Truenat’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권고한 최초의 현장형(POC) 분자진단 플랫폼이다.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이 가능해 전기와 실험실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며 결핵뿐 아니라 COVID-19, 간염, HPV 등 40개 이상의 감염병 진단에도 활용된다.

이 기기는 WHO 및 혁신진단기술재단(FIND), Global Fund(결핵·에이즈·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 보급되어 전 세계적으로 1만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1500만 건 이상의 결핵 검사를 시행하여 결핵 퇴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왼쪽부터)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스리람 나타랴난 대표, Stop TB Partnership 루치아 디미우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리핀 벤탄얀 제도에서는 결핵 선별검사가 약 13배, 진단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티모르·콩고민주공화국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Truenat을 장착한 ‘Lab on Wheels’라는 이동형 진단차량(X-RAY 장비 및 분자진단기 탑재)을 도입해 현장 선별검사부터 진단, 치료 연계까지 하루 안에 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스리람 나타랴난(Sriram Natarajan) 대표는 “고촌상 수상은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팀에 있어 큰 영광이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검체 유형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SK온, 국내 배터리 기술발전 공로 인정

박기수 미래기술원장, 국무총리표창

SK온은 박기수 미래기술원장(사진)이 30일 서울 강남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연구개발(R&D)의 중장기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배터리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원장은 지난해 SK온 R&D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고체 배터리, 건식 전극 공정, 액침 냉각 기술 등 핵심 기술 전략을 마련하며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다. 특히 전고체 파일럿 플랜트 준공과 함께 상용화 목표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으로 설정하며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다.

또한 SK온의 ‘기술 주도 성장’이라는 경영 기조에 따라 지난 8월 미래기술원 출범을 주도했다. 박 원장은 R&D 조직



의 정체성을 ‘기술 혁신’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각형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플랫폼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원장은 외부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인터배터리, 한국세라믹학회 등 주요 전시회와 학술대회에서 SK온의 배터리 R&D 비전을 공유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한양대 등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미래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화학공학 박사인 박 원장은 25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에 전념해왔다. 2012년 SK이노베이션(현 SK온)에 입사해 배터리 셀 개발팀장, 실장을 거쳐 R&D 본부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미래기술원 출범과 함께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원관희 기자 wkh@



동아쏘시오그룹-KPGA, 기부금 전달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9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페럼클럽에서 ‘더채리티클래식 2025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더채리티클래식 2025를 통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프로들이 기부한 1억원과 동아쏘시오그룹이 동반 기부한 10억원을 일호재단에 전달했다.

/동아쏘시오그룹

CJ올리브영, 지속가능한 K-뷰티 공유

‘올리브영 임팩트 리포트’ 발간

CJ올리브영 지난해 경영 활동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풀어낸 보고서 ‘2025 올리브영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올리브영이 추진해 온 사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K-뷰티 글로벌 시장 선도 ▲파트너 상생경영 ▲옴니채널 전략 강화 등 세 가지를 핵심 사업 요소로 꼽았다.

‘K-뷰티 글로벌 시장 선도’에 대해서는 온라인 역작구물 ‘올리브영 글로벌’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 브랜드 사례를 다룬다. 또 방한 관광객들의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조명한다.

‘파트너 상생경영’에서는 올리브영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동반성장 전략을 공유한다.

‘옴니채널 전략 강화’에서는 전국 매장망과 온라인몰 전반에 걸친 오늘날드림 서비스, 도심형 물류센터 등 K쇼핑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청하 기자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국무총리 표창

동화기업 계열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2025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재민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대표(가운데)가 시상식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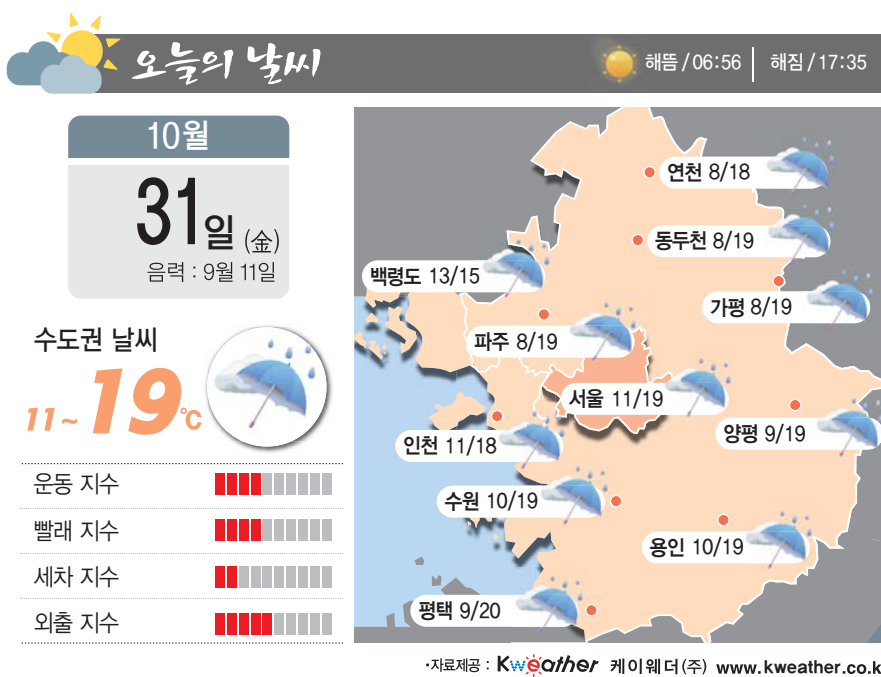
/동화기업



농협, 행담도휴게소서 국내산 쌀 나눔

농협중앙회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함께 쌀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3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해대교 행담도휴게소에서 국내산 쌀 증정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은 휴게소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생명이 기부한 당진 해나루쌀 500g들이 1000포와 쌀 인식 개선 홍보물을 나눴다.

/농협



사다리 건너차기 부동산 정책은 필패



이 정 혁

西村브리핑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유명한 저서 '사다리 건너차기'에서 가진 자들의 위선을 고발했다. 네트워크 밖에서 이미 무지막지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사리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오르면, 기득권들이 이를 건너챌다. 공정함은 기대하기 어렵다.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9·7'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와 함께 무차별 대출 규제,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정책을 내놔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 초반만 해도 폭등의 열기를 식히고 시장의 과도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신했다. 하지만 공급없이 수요만 억제하면서 당장 거주지 이동이 시급한 실수요자 거래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는 아예 집을 포기하게 하는 등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더 도드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이 고가부동산을 통해 자산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작 대출 규제와 갭투기억제의 대상에서 스스로를 비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흔들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경질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국민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조합원 자격으로 38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

울 서초구에 47평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자 "한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최근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했다.

10·15 대책 이후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은 이런 저런 추가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를 대한 대출에 적용해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한발 물러섰다. 그뿐이 아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후 '땀집 처방'만 반복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답은 뻔한데 맞추기가 어렵다. 공급과 수요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야말로 안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란은 투기성 자산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제도적 허점과 불공정한 규제 구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규제보다는 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세제 정상화, 공직윤리 강화 등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다.

/linh@metroseoul.co.kr

AI 강국의 필수 요건, 듣는 귀와 열린 마음



기지 수첩

김 현 정
(IT부)

지난 28일 열린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테크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기술포럼'에서는 한국의 AI(인공지능) 경쟁력에 대한 흥미롭고도 역설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국 사회의 단점으로 자주 지적되던 '다혈질적인 성격', '빨리빨리 문화', '관 주도 생태계'가 오히려 AI 산업 성장에 최적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전무는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즉각 반영하는 젠슨 황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엔비디아 혁신의 원동력인데, 한국인은 그보다 더 빠르고 성격이 급하다"며 "AI 혁신 속도전에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김

형준 스퀴즈비츠 대표는 "한국만큼 반도체를 로우 레벨부터 서비스 레벨까지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AI 비즈니스를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노타 AI 김태호 CTO도 "메모리와 반도체 중심의 산업 기반에 정부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결합된 구조는 한국만의 특수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탄탄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AI 강국'이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현장 전문가들이 지목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소통의 부재'였다. 이 전무는 "정부의 드라이브는 큰 동력이지만, 반도체 공급자들이 수요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루를 통째로 써서라도 끝장 토론을 통해 '이건 꼭 해보자'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AI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안착시킬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오픈 마인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CTO는 "솔직히 다 까놓고 욕을 먹더라도 서로 이야기하며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한국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의 선두 주자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공개-피드백-개선'의 순환 구조를 가속화하는 일을 꼽았다. 김 대표는 "AI 반도체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들겨 맞을 걸 알면서도 과감히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옥한 토양에 심은 식물이라도 빛과 물이 부족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만큼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hjk1@

오늘의 운세 10월 31일 (음 9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 의식이 일어난다. 48년생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 에게도 배울 것이. 60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72년생 심신을 닦고 집 안도 닦자. 84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소

37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49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61년생 흰색이 행운을. 73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뗄 수 없이 친한 친구가 감사. 85년생 백(魄)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호랑이

38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50년생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조금씩. 62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될 것. 74년생 인연법으로 인해 손해사. 86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토끼

39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51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63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75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87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양

40년생 뒤편 자신의 탓일 것이다. 52년생 약속이 겹치지 않도록 메모하라. 64년생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는다. 76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데. 88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뱀

41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려라. 53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65년생 뒷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77년생 공과 보라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치 않는 것이. 89년생 잠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말

42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54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66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78년생 조상을 숭배하고 족보에 관심을 두자. 90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과 신념으로 밀고 가자.



양

43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5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67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79년생 위태롭고 험난함을 무릅쓰다 보면 결과에 이르게 된다. 91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원숭이

44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56년생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68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80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92년생 대가업을 그만두겠다는 자식이 기가 막혀서 우울하다.



닭

45년생 부모님 돌아가신 날 효를 하자. 57년생 소형아파트라도 빛 없이 건강하니 행복. 69년생 고부간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8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으라 했다. 93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돼지

46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58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조전. 70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82년생 사기 수는 누구에게나 접근되니 항상 진중하게. 94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수를 따르는 것도 지혜.



돼지

47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 난다. 59년생 부동산계약은 오래된 부동산에서. 71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83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95년생 서글프게 울고 싶어도 미레가 있으니 공부로 투자.



김상회의四季

팔공산 갯바위, 기도 명당

대구 팔공산 정상 부근에는 갯바위로 불리는 거대한 석불좌상이 있다. 정식 명칭은 석조여래좌상으로 머리에 갯처럼 생긴 넓은 평판 바위를 이고 있어 '갯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갯바위 석조여래좌상은 예로부터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영험한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수많은 참배객이 찾아와 소원을 빌고 기도를 올리는 기도 명당이다. 갯바위에서 기도를 올리면 효험을 본다는 말은 풍수지리로 보면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이곳은 기운이 모이고 응집하는 혈자리에 해당하니 산의 맥이 응결하여 생기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인체의 경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갯바위가 위치한 자리는 팔공산의 능선이 마치 용처럼 고개를 드는 맥 위에 있다.

이러한 형세는 강력한 상승 기운을 품고 있어 간절한 염원이 하늘로 전해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갯바위는 백두대간의 기운이 낙동 정맥으로 뻗어 내려오다 가지를 치며 형성된 지맥의 끝자락에 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을 용맥이라고 부르는데 갯바위는 팔공산의 주봉인 비로봉에서 출발한 용맥이 힘차게 멈춰 선 곳이다. 용맥이 끝나는 지점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모이는 혈자리가 된다. 갯바위는 바로 그 혈자리 위에 자리하고 있다. 자리한 암반은 단단하면서도 표면이 평탄하다. 기운을 저장하기에 좋은 형세다. 단단한 암반은 기운이 쉽게 흩어지지 않게 하고 평평한 바위면은 사람들의 기운이 모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올려도 기운이 한곳에 머물러 축적되고 뒤로는 팔공산이라는 용맥이 받쳐주고 앞으로는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면서 명당의 기운을 품어.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니 배산임수의 조건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로 고난도의 알도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1	2	8	7	9	9	8
9	7	8	9	2	6	2	1	8
9	2	8	1	8	9	7	2	6
8	2	9	2	9	1	8	6	7
8	9	6	7	9	8	1	2	2
2	1	7	6	6	8	9	9	2
1	8	2	9	7	6	8	9	9
7	6	2	8	1	9	2	8	9
8	9	9	6	2	2	2	8	7

8	7	1	9	2	9	6	8	2
8	2	9	8	1	6	2	7	9
9	6	2	2	8	7	1	8	9
2	8	6	9	2	1	7	9	8
9	9	2	7	8	2	8	1	6
1	8	7	6	9	9	2	2	8
7	1	8	2	9	8	9	6	2
6	9	9	6	7	2	8	2	1
2	2	8	1	6	8	9	9	7

오너 3세 합류... 오뚜기, 美·베트남 중심 글로벌 '괄목성장'

K-푸드 세대교체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의 인기가 거센 가운데, 농심과 삼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성과가 부진했던 오뚜기가 뒤늦게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5년 새 가장 빠른 해외 성장세를 기록한 오뚜기는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매출을 늘리며, 국내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오너 3세 함연지 씨가 경영에 합류하고, 글로벌 브랜드명까지 바꾸는 등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편집자주



오뚜기의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19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매출보다 6배 빠른 성장세다.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9.5%에서 10.8%로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과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미국 법인(OTOKI AMERICA HOLDINGS)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6% 증가한 52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감소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베트남 법인(OTOKI VIETNAM) 역시 14.9% 늘어난 480억 원을 올렸다. 두 지역의 매출만으로 전체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브랜드 리뉴얼과 글로벌 전략

오뚜기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2023년 11월 '글로벌사업부'를 '글로벌사업본부'로 격상시켰다. 동시에 LG전자 출신의 해외사업 전문가 김경호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영문 사명도 외국인이 부르기 쉽게 'OTTOGI'에서 'OTOKI'로 변경했다. 진라면, 오뚜기밥, 참기름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순차적으로 글로벌 리뉴얼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글로벌 모델로 기용해 '진라면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진라면의 영문명 'JIN'과 모델의 이름이 일치한다는 점을 활용해 전 세계 젊은 소비층을 공략 중이다. 오뚜기는 미국·독일·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대형 광고와 전시회 홍보를 진행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오뚜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4개국에 법인을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는 당면 원료를, 뉴질랜드에서는 사골 원료를, 베트남에서는 라면과 소스류를 주로 생산한다.

특히 베트남 법인은 2024년 '무이(MUI) 할랄 인증'을 획득하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 인구 20억의 할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8월 '오뚜기푸드 아메리카(OTOKI FOODS AMERICA)'를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라마라다 지역에 약 565억 원을 들여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은 라면뿐 아니라 소스, 간편식, 레토르트 제품 등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종합식품 기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너 3세 함연지, 美 법인서 글로벌 마케팅 주도

글로벌 도약의 중심에는 오너 3세 함연지 씨가 있다. 함 씨는 본업이던 뮤지컬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2024년



오뚜기 옐로우즈.

/오뚜기

상반기 해외매출 1963억, 전년비 18% ↑
외국인들 쉽게 영문사명 'OTOKI' 바꾸고
BTS 멤버 '진' 모델 기용 글로벌 캠페인

美·中·베트남·뉴질랜드서 현지법인 운영
'할랄 인증' 동남아·중동·아프리카 진출

오너 3세 함연지·남편 김재우 美 법인 입사
마케팅 팀서 'K-푸드' 인지도 확산 나서



진라면 모델 BTS진.

/오뚜기

미국 법인 'OTOKI AMERICA HOLDINGS'에 입사했다. 현재 마케팅팀 정식 사원으로 근무하며 K-푸드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직접 나서고 있다. 남편 김재우 씨 역시 같은 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오뚜기는 지난 6월 해당 법인에 총 565억 원을 출자하며, 이 중 353억 원은 대여금 출자전환, 212억 원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조1000억 원 달성을 위한 핵심 자금으로 투입된다.

함 회장의 사돈이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인 김경호 부사장, 그리고 오너 3세 함연지 씨의 참여로 오뚜기의 글로벌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인증·유통망·현지화 3박자 강화

오뚜기는 지난달 진라면, 오뚜기밥, 참기름 등 글로벌 주력 11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AHS)'의 'K-Food & Safety (KFS)' 인증을 획득했다.

KFS 인증은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만 부여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오뚜기는 수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공식적으로 국제 인증을 받게 됐다.

또한 미주 시장에서는 코스트코 입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북부 64개 매장에 입점했으며, 연내 남부 지역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맞춤형 '오페라면' 시리즈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중동 시장에서는 대용량 제품, 동남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 식품마트 체인 '고 아시아(Go Asia)'에 진라면을 입점시키고,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대형 광고를 설치하는 등 유럽 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오뚜기는 "현재는 단기 매출 확대보다 시장별 4P(제품·가격·유통·프로모션) 체계를 정비하는 단계"라며 "기반을 다진 효과가 2026년부터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만 오뚜기 대표는 "글로벌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현지 생산 설비 확충과 BTS 진을 모델로 한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오뚜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뚜기라면 점자용기.

/오뚜기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오뚜기

메트로 한줄뉴스



▲미·중 정상회담에 중증시 10년 만에 최고치

/사진 뉴스

▲메타·구글·MS, AI 설비투자 '광속 질주'...수백조원 쏟아붓는다

▲트럼프-시진핑 회담에 우크라이나, 종전 영향 기대...“러 전쟁 수행력, 中에 의존”

▲민중민주당 “‘APEC 방한’ 트럼프에 훈장·금관 상납”

▲푸틴 “러시아 수산자원 많다” 이례적 어류가공·수송 확대 지시

▲日 언론, 韓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 “주한미군 작전 확대, 中 자극”



美 '핵잠 건조' 승인
자주국방 강화 기대
06



도심 한복판, 자연을 품다 사계절 머무는 정원 일상

아파트의 미학(美學)

‘래미안 원펜타스’

도심 주거지 조경 특화 단지
선큰 구조로 채운 채광·개방감

갤러리 포레 중심의 정원 설계
예술 오브제와 놀이 공간 배치

국제학교 인접한 명문 학세권
백화점·공원 인접 생활 인프라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에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까지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준공한 지 1년여 남짓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이미 오랜 시간 자리잡고 있었던 듯 단지 안팎으로 우거진 수목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곳곳에 심겨진 낙상홍에도 빨간 열매가 열렸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반포동 일대의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으로 총 64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9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했는데 청약에 무려 10만명이 넘게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인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조경 설계를 적용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세계 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 (APR) 조경(LA) 어워즈'에서 주거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경은 갤러리 포레를 중심으로 단지 내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어우러져 있다.

갤러리 포레는 천장이 없는 개방된 지하 공간인 선큰(Sunken) 형태로 정원을 조성해 단지 깊은 곳까지 햇빛이 들어온다. 단지 중앙에 큰 정원을 비치해 어느 세대에서도 녹음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단지의 커뮤니티 역할도 한다. 한쪽에는 대형 수경시설을 설치해 여름에는 청량감을 주고, 반대편엔 이끼정원으로 다양한 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스

퀘어 가든은 팽나무와 분수대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책로에서 보면 대칭미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으며, 양 옆에 위치한 그늘에서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오브제 가든은 잔잔한 수경시설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걸아가는 동선에 따라 각기 다른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파티오 가든은 단지 중심부에 작은 숲처럼 꾸며졌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독특한 형태가 특징인 팽나무들이 심어졌으며, 팽나무 외에는 높지 않은 관목과 초화로만 구성했다.

더 트리 가든은 재건축 이전부터 터를 지켜온 약 370년이 된 보호수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다. 낮에는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밤에는 반딧불이 조명이 어우러져 낭만적이야경을 즐길 수 있다.

래미안 원 단지 곳곳에는 신혜정 작가의 'LOVE', 최태훈 작가의 'Skin of Time' 등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조각 작품이 배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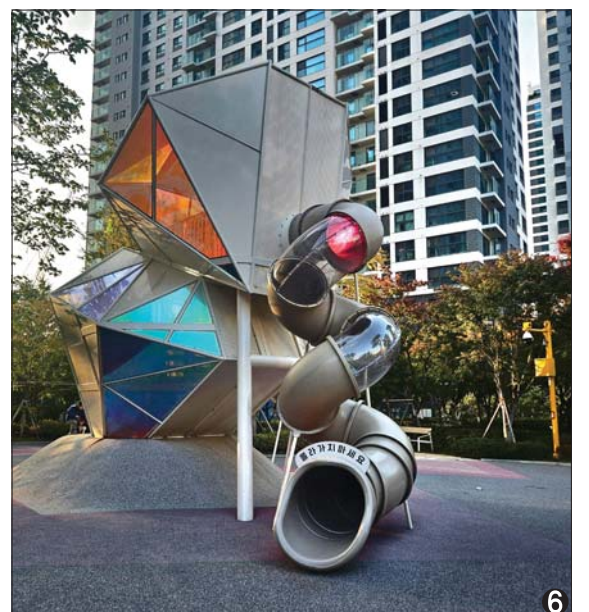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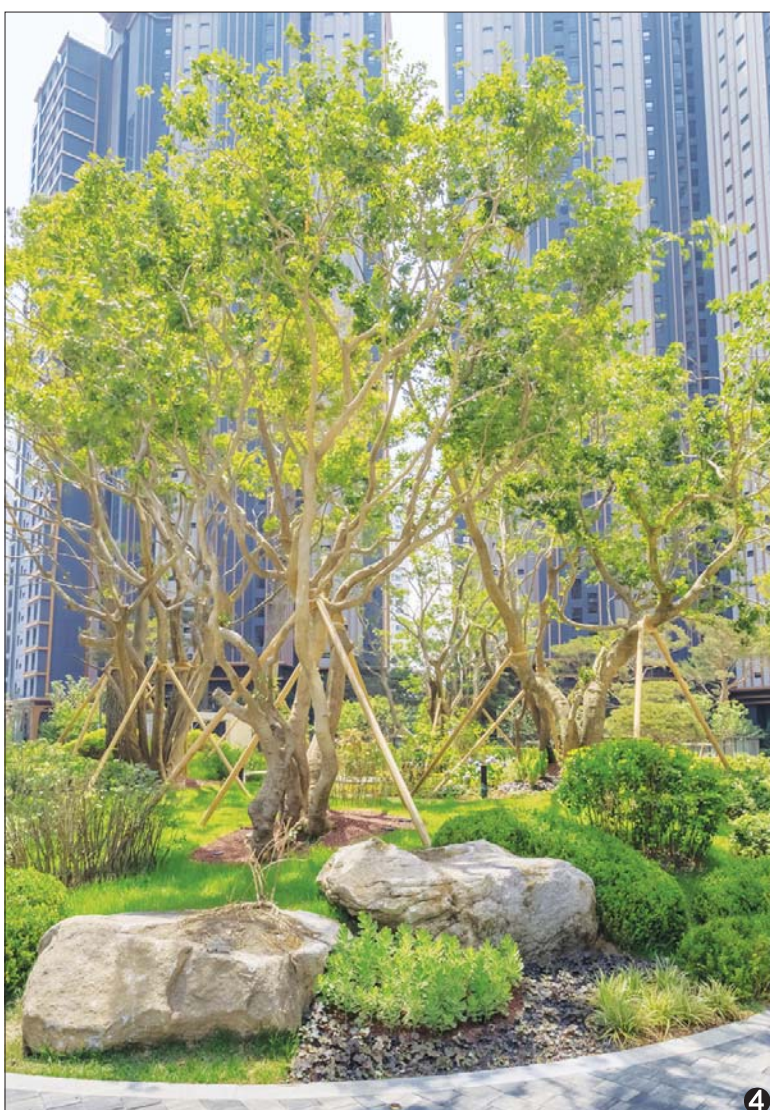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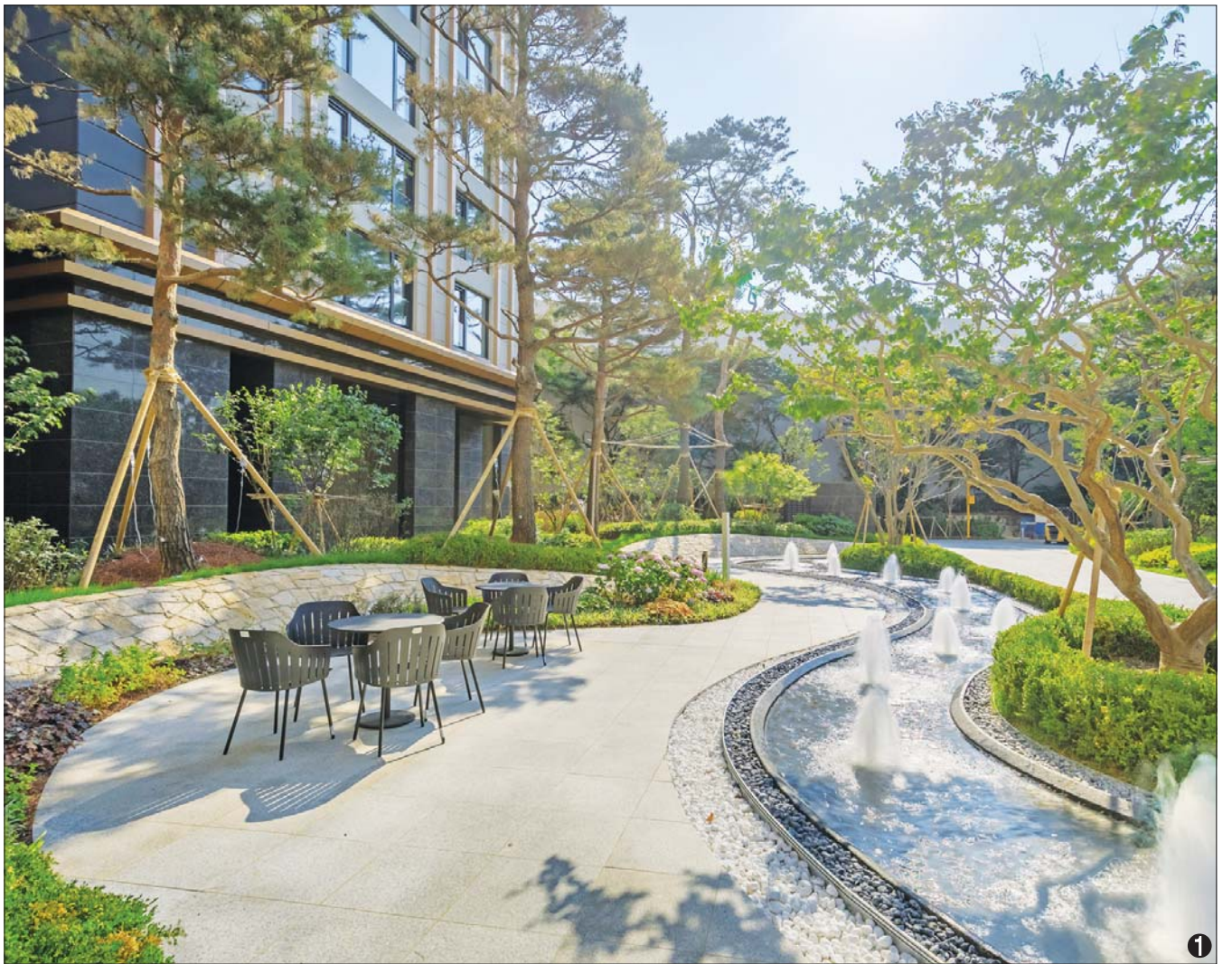
놀이터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게 만들었다. '내추럴 워크 플레이그라운드'는 자연 위를 걷는 기쁨을 컨셉으로 했으며, 단지 입구쪽 놀이터는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를 마련한 육생비오톱 옆에 위치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원펜타스는 단 하나를 의미하는 '원(one)'과 라틴어로 숫자 5와 엘리트를 뜻하는 '펜타스(Pentast)'의 합성어다. 반포 중심의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상징한다. 학군과 교통, 환경 모두 빠질 게 없다.

9호선 신반포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며,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5분 안팎이면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출입구 맞은편은 국제학교인 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등학교가 위치했고, 반포초와 반포중·세화여중고·세화고 등이 인접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APEC 2025 K O R E A

신라 천년의 미소가 내일의 미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LG가 응원합니다
LG proudly supports APEC 2025 KOREA



* 2025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는 10월 31일-11월 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APEC 공식 홈페이지: <https://apec2025.kr>)
* 본 광고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제2010호)와 경주 첨성대(국보 제31호)를 소재로 제작했습니다